

도맹그가 말했지.

“하지만 이제 두 분은 장성하시고, 저는 늙어버렸답니다.”

그가 이렇게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, 한 무리의 탈주 흑인 노예들이 거기서부터 스무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네. 그 무리의 대장이 폴과 비르지니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.

“마음씨 좋은 백인 꼬마분들, 무서워하지 마세요. 오늘 아침 저희는 두 분이 흑강의 흑인 여자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. 두 분이서 그 악질 주인에게 용서를 대신 구하러 가셨다지요. 고마움의 표시로 저희가 두 분을 어깨에 메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”

그러더니 그가 신호를 했고, 곧바로 가장 건장한 흑인 탈주 노예 네 명이 나뭇가지와 리아나덩굴을 엮어 들것을 만들고는, 폴과 비르지니를 거기 얹힌 다음 어깨에 땀다네. 이에 맞춰 도맹그는 횃불을 들고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고, 무리 지어 왔던 사람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아이에게 축복을 한가득 빌어주는 가운데 그들은 길을 나섰지. 비르지니는 감격에 겨워 폴에게 말했네.

“봐봐, 오빠! 하느님은 착한 일에 반드시 보답을 해주신 다니까.”

그들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을 둘러싼 산 밑에 도착했는데, 여러 군데 불을 피워 놓은 덕에 산등성이가 환히 밝